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현황

한금순*

- I. 머리말
- II.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활동상
- III.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
 - 1.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 중초 등재 현황
 - 2. 각 인물별 호적중초 등재 상황
- IV. 맺음말

I. 머리말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는 법정사가 위치한 도순리를 비롯하여 영남리, 월평리, 중문리, 하원리 등 좌편의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이들 마을 중에는 도순리, 월평리, 하원리 등지의 호적중초가 있다. 호적중초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의 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하원리는 법정사에서 출발한 거사 참여자들의 집합지이기도 하였고, 체포된 사람 중 하원리 사람이 가장 많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중 하원리 인물들의 호적중초 등재여부를 살핀 방법은, 우선 유족들의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부모와 조부모의 제적부를 살폈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성명을 토대로 하여 호적중초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호적중초는 마지막 36권에서부터 시작하여 1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제적부와 호적중초의 비교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적부를 통해 확인된 유족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성명을 가지고 호적중초에서 동일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호적중초 상의 인물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와 동일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름만 같은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제차 점검할 수 있었다. 호적중초 상에 나타나는 인물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인물인지 아닌지 검토를 위하여 제적부에 나타나는 조상 혹은 형제들의 성명과 비교하고, 본(本)이나 처(妻)의 성명, 그리고 처(妻)의 부모 성명 등과 대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들의 혼인관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항일운동 이후 거주지 이전 실태도 파악할 수 있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 20명 중 13명을 호적중초에서 찾을 수 있었다. 4명은 호적중초에서 찾을 수 없었고 3명은 후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료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이다. 하원리 외의 다른 마을 참여자까지는 아직 전부 조사하지 못하였다.

II.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활동상

김연일 등 법정사 승려들은 1914년부터 법정사에서 활동하였으며 1918년 4월경부터 법정사 항일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거사를 바로 앞둔 1918년 10월 5일과 6일은 법정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예불일이었다. 이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린 인물 중에 하원리 사람으로는 김상언, 오병윤, 이승빈, 이달생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10월 7일 새벽 거사 대열에 동참하여 이미 준비해두었던 깃발 6기, 화승총 3정, 곤봉 등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였던 이들은 각 마을에서 참여자들을 구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들을 따라 하원리 사람인 양봉, 원인수, 김인송, 지축생, 지갑생, 오인식, 강순봉, 강태하 등 8명이 거사에 참여하였다.

하원리 인물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사람은 김상언이다. 김상언은 선봉대장인 강창규의 지시에 따라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 기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하였고 전선과 전주도 절단하였다. 김상언은 또한 강창규를 따라 중문경찰관주재소의 건물에 방화하고 경찰서의 기구와 문서 등도 불사르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형량은 김상언 6년, 오병윤, 이달생, 이승빈은 1년형이 언도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검찰에 송치된 하원리 인물은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1918), 국가기록원 소장)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형사사건부』는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자로 현행범 44명, 비현행범으로 22명 모두 66명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중 48명을 사건 발생 한 달 여 만에 기소 처리하였고, 단 한차례의 공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죄명은 소요 및 보안법 위반죄가 주로 적용되었고 방화죄와 상해죄, 총포 화약 취급령 위반죄 등이 적용되었다. 재판을 받은 46명 중 징역형이 31명으로 총지휘자인 김연일에게 선고된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30원까지 선고되었다.

『형사사건부』에 나타나는 하원리 출신 인물은 현행범은 8명, 비현행범이 12명으로 모두 20명이다. 구속된 사람은 7명, 13명은 불구속이며, 기소는 13명, 불기소 7명, 형 집행자는 13명, 방면 2명, 불기소되어 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 5명이다.

다음의 표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출신 인물의 개인별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형사사건부』, 『정구용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의 내용을 형량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1> 하원리 출신 인물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이력(형량 순)

성명	연령	헌행범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	집행 여부	형량	역할
김상언	48	헌행범	구속	기소	집행	6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고이즈미 기요미(小泉清身) 등을 구타 -전선과 전주 절단 -중문경찰관주재소의 건물 방화, 경찰서의 기구와 문서 불사름 -방화죄와 상해죄 추가
오병윤	22	헌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이달생	32	헌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이승빈	28	헌행범	구속	기소	집행	1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법정사 집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올림 -10월 7일 각 마을에서 앞장 서 참여자 구함
이춘삼	63	헌행범	구속	기소	집행	6월	-화승총 2정 및 화약 소지, 양남구에게 양도
강순봉	35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강태하	22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김인송	41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양봉	28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오인식	23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원인수	51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지갑생	30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지축생	42	비헌행범	불구속	기소	집행	벌금 30원	-10월 7일 법정사에서 내려온 선발대를 수행하며 거사에 참여
강기추	35	헌행범	구속	불기소	방면		
현재천	46	헌행범	구속	불기소	방면		
고기동	22	비헌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없음		
김병일	33	비헌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없음		
김인호	38	비헌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없음		
문남진	52	헌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없음		
원성춘	24	비헌행범	불구속	불기소	해당없음		

출처: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년)
 『정구용판결문』(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1923. 6. 29, 국가기록원 소장)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목포형무소, 1928. 12. 12, 국가기록원 소장)

Ⅲ.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

1.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의 호적 중초 등재 현황

하원리 호적중초는 1810년 경오식(庚午式) 호적중초부터 1908년 무신식(戊申式) 호적중초까지 모두 36권이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호적중초에는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4대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호적 구성원의 직역·성명·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하원리 인물을 호적중초에서 찾기 위해 우선 ① 현재 확인된 유족들을 통하여 해당인물의 제적부를 확인하였다. 제적부를 통하여 항일운동 참여자 본인 및 부모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렇게 확인된 성명을 가지고 하원리 호적중초 마지막 책인 36권(1908년)에서 본인과 부모의 성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연대를 거슬러 올라갔다. 각 인물의 가계에 따라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까지 추적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현황을 개괄하면, 등재된 인물은 13명, 등재되지 않은 인물은 4명, 추적 불가능한 인물 3명으로 정리된다.

<표 2> 하원리 참여자의 호적 등재 현황

등재 현황	인원	비고	
등재	13명	본인 및 부(父) 등재	11명
		대포리 호적중초	1명
		호적 기록 끝에	1명
미등재	4명		
추적 불가능	3명	후손이 밝혀지지 않음	

20명 중 하원리 호적중초를 통해 본인과 부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인물은 11명으로 강기추, 강순봉, 강태하, 김인호, 문남진, 원인수, 이달생, 오병윤, 오인식, 원성춘, 지갑생이다. 이승빈은 대포리 호적 중초에서 확인된다. 또한 현재천은 하원리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책의 끝에 이정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이들 13명의 호적중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호적중초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은 고기동, 김상언, 김인송, 이춘삼 4명이고, 3명인 김병일, 양봉, 지축생은 후손이 없어서 인적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제적부는 물론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호적 등재의 원칙은 마을 구성원 전체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할당된 만큼의 징세를 위한 수만큼만 등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호적중초에 드러나지 않는 인

물이라고 해서 하원리에 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들은 제적부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하원리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

등재 여부	인원	성명	등재 상황
등재	13명	강기추	본인
		강순봉	본인
		김인호	본인
		문남진	본인
		오인식	본인
		원인수	본인
		이달생	본인
		현재천	본인
		강태하	부
		오병윤	부
		원성춘	부
		이승빈	부
		지갑생	부
미등재	4명	고기동	미등재
		김상언	미등재
		김인송	미등재
		이춘삼	미등재
확인 불가	3명	김병일	후손을 찾지 못하여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양봉	후손을 찾지 못하여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지축생	후손을 찾지 못하여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

호적중초에 나타나는 하원리 인물은 표에서 보듯이 본인이 호적중초에 등재된 경우는 8명으로 강기추, 강순봉, 김인호, 문남진, 오인식, 원인수, 이달생, 현재천이고, 아버지가 호적중초에 등재된 경우는 강태하, 오병윤, 원성춘, 이승빈, 지갑생 등 5명이다. 본인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적부 상에 나타난 부모의 기록을 통해 호적중초를 찾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는 호적중초 등재 횟수이다. 본인과 부(父)의 등재 여부만을 표로 만들었다.

<표 4> 하원리 참여자의 호적중초 등재 횟수 및 연도

등재 여부	성명	등재상황	등재 횟수 및 연도	
			등재 횟수	등재된 호적중초의 연도
등재	강기추	본인	4	1905~1908

	강순봉	본인	3	1906~1908
	김인호	본인	3	1906~1908
	문남진	본인	1	1908
	오인식	본인	1	1908
	원인수	본인	12	1894~1908
	이달생	본인	4	1905~1908
	현재천	본인	3	1898, 1902, 1908
	강태하	부	5	1904~1908
	오병윤	부	13	1882~1908
	원성춘	부	6	1898~1903
	이승빈	부	6	1898, 1900~1904
	지갑생	부	5	1904~1908

본인과 부(父)의 등재 외에도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윗대 가계가 지속적으로 등재된 경우도 파악되었다. 다음의 표는 하원리 인물들의 가계가 어느 기간만큼 호적중초에 등재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하원리 호적중초 1권에서부터 마지막 36권까지 계속 등재된 집안이 있는가 하면, 등재되었다 누락되었다 하는 가계도 있다. 호적명은 길어서 본고에서는 순서에 따라 '1권'과 같이 숫자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하원리 호적중초의 원래 명칭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표 5> 하원리 참여자 가계의 호적 등재 현황

성명	등재된 호적중초	등재 기간	비고
강기추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강순봉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강태하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오병윤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오인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이달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지갑생	『하원리 호적중초』 1권~36권	1810년~1908년	
원성춘	『하원리 호적중초』 8권~36권	1837년~1908년	11권에는 없음
원인수	『하원리 호적중초』 26권~36권	1894년~1908년	대포리에서 이주
현재천	『하원리 호적중초』 27권, 30권, 36권	1898년, 1902년, 1908년	권 말미 이적 기록
이승빈	『하원리 호적중초』 27권~32권	1898년~1904년	대포리 호적
김인호	『하원리 호적중초』 34권~36권	1906년~1908년	
문남진	『하원리 호적중초』 36권	1908년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들은 20명

이다. 이 가운데 호적중초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13명이다. 4명은 미등재이고, 3명은 후손이 없어서 호적중초로 접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호적중초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8명이고 부(父)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5명이다. 아울러 호적중초에 등재되는 기간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에서부터 36권(1908년)까지 가계가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는가 하면, 등재되었다 누락되었다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호적중초 본문에는 누락되었으면서 호적중초 말미에 이정으로 기록된 인물의 경우도 볼 수 있었다.

2. 각 인물별 호적중초 등재 상황

하원리 참여인물 20명의 호적중초 등재 상황을 각 인물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본인 등재, 부(父) 등재, 미등재, 그리고 현재 후손을 찾지 못하여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호적중초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순으로 정리한다.

1) 본인 등재

(1) 강기추

강기추의 집안은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기추는 1905년 호적중초에 3세로 처음 등재되었다. 강기추의 호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강기추는 1907년에 갑자기 15세로 기록되고 있다. 호적중초에 나이를 속이는 경우는 15세부터 59세까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직역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강기추의 경우도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등재를 시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15세가 되는데 15세로 등재된 해에 강기추는 분호(分戶)하여 홀로 호(戶)를 구성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부인을 두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호구조사세칙’의 적용으로 별거하는 경우는 부자지간도 개별호로 파악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이후의 결과이다.

강기추의 실제 나이는 제적부에 1883년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로 기록되어 있어 일치된다. 호적중초의 나이는 직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6> 강기추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7통 7호	7통 7호	7통 7호	16통 7호	11통 2호
부	직역	別監	別監	別監		
	성명	文亨	文亨	文亨		
	연령	51	52	53		
모	씨명	任氏	任氏	任氏		
	연령	49	50	51		
본인	직역				校生	
	성명	基樞	基樞	基樞	姜基樞	姜基樞

	연령	3	4	15	15	16
처					李氏	李氏
					20	13
비고	강기추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2) 강순봉

강순봉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순봉은 『형사사건부』에 강순봉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됨과 동시에 이명으로 호봉(好逢)이 기록되어 있다. 호적중초에는 호봉(好逢, 鎬逢)으로 제적부에는 강순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호적중초와 제적부 기록을 비교해보면 아버지는 강영백으로 일치하고 있어 강순봉이 강호봉과 동일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다. 강순봉도 나이를 허위 등재하고 있다. 강순봉은 『형사사건부』(1918년)에 35세로 기록되어 있다. 제적부에는 1893년생으로 1918년에는 25세였을 것이고,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6세이다.

<표 7> 강순봉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4	하원 35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6	1907	1907	1908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8통 3호	8통 3호	17통 1호	12통 3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永伯	永伯	姜永伯	姜永伯
	연령	47	48	48	49
모	씨명	李氏	李氏	李氏	李氏
	연령	47	48	48	49
본인	성명	鎬逢	鎬逢	好逢	鎬逢
	연령	4	5	5	6
비고	강순봉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하원리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등재되어 있다.				

강순봉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강순봉의 외조부모는 이달생의 조부모라는 점이다. 두 사람의 제적부와 호적중초에 드러난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순봉과 이달생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3) 김인호

김인호는 1906년 34권 호적중초에부터 나타난다.

<표 8> 김인호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12통 8호	11통 2호	16통 6호
부	직역		留鄉座首	留鄉座首
	성명		金昌俊	金昌俊

	연령		61	62
모	씨명		高氏	高氏
	연령		64	65
본인	직역	留郷別監	留郷別監	留郷別監
	성명	金仁浩	仁浩	仁浩
	연령	26	26	27
비고	- 1918년 김인호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8세, 제적부에 1880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8세, 호적중초의 나이로 기준하면 37세이다.			

김인호의 부인 강신출(姜辛出)은 강기길의 장녀이다. 강기길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태하의 아버지이다. 강신출은 강태하의 누나 즉 김인호는 강태하의 자형임이 제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 문남진

문남진은 1908년 호적중초 36권에만 나타나고 있다. 장의(掌議)의 직역을 기록하고 있다. 부모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이 없다.

<표 9> 문남진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6
연도	서기	1908
	연호	융희 2년
통 / 호	20통 5호	
본인	직역	掌議
	성명	文南辰
	연령	45
처	씨명	李氏
	연령	27
비고	- 1918년 문남진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52세, 제적부에 1863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55세, 호적중초의 나이로 기준하면 55세이다.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문남진의 제적부는 하원리를 첫 본적지로 기록하고 있으며,¹⁾ 이어 도순리를 거쳐 대포리로 이주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문남진의 본적지는 『형사사건부』에 도순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남진은 1908년 하원리 호적중초에 등재되어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1919년 2월에는 도순리로 돌아갔으나 동생들과는 다른 번지에 살았다. 1년 채 못 살고 1920년 1월 대포리로 이주하여 1945년 사망할 때 까지 대포리에 거주하였다.

(5) 오인식

오인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1) 문남진, 문남규, 문남은은 형제이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문남규와 문남은은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되지 않아 형제이지만 하원리 인물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형사사건부』에는 도순리로 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표 10> 오인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2통 3호	2통 3호	2통 3호	2통 8호
부	직역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성명	吳永化	吳永化	吳永化	吳永化
	연령	41	42	43	44
모	씨명	姜氏	姜氏	姜氏	姜氏
	연령	41	42	43	44
본인	성명				率子
	연령				3
비고	- 1918년 오인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3세, 제적부에 1896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2세이다. 호적중초를 기준하면 13세이다.				

오인식은 1908년에 3세 솔자(率子)로 등재되어 있다. 제적부에 의하면 오인식은 오영화의 장남으로 1896년생이었고 차남은 1910년생이다. 따라서 호적중초의 솔자(率子)는 이름을 등재하지 않고 자식이라는 뜻으로만 쓴 것으로, 오인식이라고 보았다.

(6) 원인수

원인수는 하원리 호적중초 26권(1894년)부터 36권까지 등재되어 있다. 원인수는 1894년에 강신록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호적중초에 등재된다.²⁾ 원인수(元仁守, 仁秀, 仁壽, 仁好³⁾)의 생부는 원재호(在湖), 조부 계철(繼哲), 증조 필대(弼大)이다. 생부 원재호는 호적 등재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조부 원계철은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된다. 원래 대포리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1> 원인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26	하원 27	하원 28	하원 29	하원 30	하원 31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894	1898	1899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6통 2호	3통 6호	3통 5호	3통 4호	3통 4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3통 5호	4통 7호
부 직									學生	學生	學生	學生

- 2) 원인수 호적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원인수는 강신록의 호(戶)에 양자로 등재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성을 바꾸지 않고 원인수로 기록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조선시대 양자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단초가 될 사항으로 생각한다.
- 3) 호적중초 상에서 원인수의 나이는 1894년에 36세에서 1904년에는 45세이다가, 1905년 호를 이어받으면서 38세로 바뀐다. 원인수라는 이름을 원인호로 쓰다가 원인수로 다시 쓴다. 동일인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원인수라는 이름을 쓸 때와 원인호라는 이름을 쓸 때 모두 부인이 고씨이며 강신록의 의자(儀子)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점 또 이름이 인호에서 인수로 바뀌면서도 주소는 3통 5호로 바뀌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인호와 원인수는 동일인물이라고 보았다.

	역											
	성명								在湖	在湖	在湖	在湖
모	연령											
	씨명								姜 召史	姜 召史	姜 召史	姜 召史
본인	연령								60	61	62	63
	직역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본인	성명	儀元秀 子仁	儀元好 子仁	假元好 子仁	假元浩 子仁	假元好 子仁	儀元好 子仁	儀元好 子仁	康信 祿故 代儀 子元 仁壽	元守 仁	元守 仁	元守 仁
	연령	36	39	40	42	43	44	45	38	39	40	41
처	씨명			高 召史	高氏	高氏	高氏					
	연령			24	26	27	28	28	29	30	31	32
비고	- 1918년 원인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51세, 제적부에 1868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50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51세이다.											

(7) 이달생

이달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호적중초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2> 이달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1통 9호	1통 9호	1통 9호	2통 1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李才伯	李才伯	李才伯	李才伯
	연령	49	50	51	52
모	씨명	高氏	高氏	高氏	高氏
	연령	52	53	54	55
본인	성명	達生	達生	達生	達生
	연령	4	5	6	7
비고	- 1918년 이달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2세, 제적부에 1887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1세,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하면 17세이다.				

이달생의 조부는 이광노인데 앞에서 살핀 강순봉의 외조부가 이광노이다.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이달생과 강순봉은 사촌 형제지간이다.

(8) 현재친

현재친은 호적중초의 말미에 세 차례 이정(厘正)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중초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표 13> 현재천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하원 27	하원 30	하원 36
연도	1898	1902	1908
직함과 성명	厘正 玄才千	厘正 玄才千	厘正 玄才千

이정(厘正)은 호적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감고(監考) 별유사(別有司) 존위(尊位) 등과 함께 각 개인이 제출한 호구단자를 검수하는 일을 하는 직함이다. 이들은 호적중초의 말미에 수기(手記)를 남기고 있는데 이정(厘正)과 감고(監考)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고 별유사(別有司)와 존위(尊位)는 성만을 수기(手記)하고 있다.

현재천은 이정을 세 차례 맡으면서도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호적이 당시의 인구를 모두 등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⁴⁾ 하원리 호적중초에서 이정과 감고의 호적중초 본문 등재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정 35명 가운데 14명(전체의 40%)이 호적중초 본문에 등재되지 않고 있고, 감고도 36명 중 13명(전체의 36%)이 본문에 누락되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현재천은 현재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적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부(父) 등재

(1) 강태하

강태하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4> 강태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32	하원 33	하원 34	하원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7통 5호	7통 5호	7통 5호	7통 5호	10통 8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姜基吉
	연령	52	55	56	57	58
모	씨명	金氏	金氏	金氏	金氏	金氏
	연령	42	45	46	47	48
형	성명	太休	太休	太休	太休	太休
		3	4	5	6	7
비고	- 강태하는 강기길의 3남이다. - 1918년 강태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2세, 제적부에 1897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1세이다.					

제적부에 의하면 강태하는 강기길의 3남으로 1897년생이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강태휴는 강태하의 형이다. 제적부 상에 강태하는 강태휴에게서 분가하여 1917년 호주가 되었다. 강태하의 누나는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김인호와 혼인하였다.

4) 김건태, 「조선후기의 인구과약 실상과 그 성격」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2) 오병윤

오병윤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5> 오병윤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2통 2호	2통 2호	2통 2호	13통 5호	2통 6호
부	직역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留鄉別監
	성명	永俊	英俊	英俊	吳英俊	吳永俊
	연령	35	36	37	38	49
모	씨명	姜氏	姜氏	姜氏	姜氏	姜氏
	연령	35	36	37	38	39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1918년 오병윤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2세, 제적부에 1901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17세,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오병윤은 제적부에 오병용(吳丙用)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적부 상 오병용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의 성명은 오병윤의 호적중초 상 성명과 일치하여 오병용이 곧 오병윤임이 증명된다. 오병윤의 둘째 아들인 윤현(1936년생)은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인 강태하의 딸과 결혼하였음이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다.

(3) 원성춘

원성춘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8권(1837년)부터 마지막 36권(1908년)까지 나타난다. 11권에는 누락되었다. 증조 원재홍은 하원리 호적중초 8권(1837년)과 9권(1840년) 10권(1843년)의 말미에 감고(監考)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천의 경우처럼 호적중초 본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12권(1849년)부터 본문에 등재되고 있다.

<표 16> 원성춘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27	하원 28	하원 29	하원 30	하원 31
연도	서기	1898	1899	1901	1902	1903
	연호	광무 2년	광무 3년	광무 5년	광무 6년	광무 7년
통 / 호		8통 3호	8통 1호	8통 1호	8통 5호	8통 7호
부	직역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성명	元贊玉	贊玉	贊玉	贊玉	贊玉
	연령	34	35	35	38	39
모	씨명		李氏	李氏	李氏	李氏
	연령		29	29	32	33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1918년 원성춘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4세, 제적부에 1896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2세,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 조부부터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데 8권(1837년)부터 마지막 36권까지 등재되어 있다 (11권은 누락).					

제적부 기록에 원성춘의 아버지는 원찬옥 어머니는 이인이다. 이를 토대로 호적중초에서 아버지 원찬옥을 찾아내었다.

(4) 이승빈

『형사사건부』에 이승빈은 하원리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빈의 집안은 대포리 호적중초에서 발견된다. 제적부 기록에 이승빈의 아버지는 이재걸, 어머니 허씨, 조부는 이흥렬이다. 조부와 어머니의 성명까지 호적중초와 일치하고 있다. 대포리 호적중초 27권(1898년)에서 처음 보이고 1904년 32권을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표 17> 이승빈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대포 27	대포 28	대포 29	대포 30	대포 31	대포 32
	권명		光武二年 戊戌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四年 更子式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五年 辛丑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六年 壬寅正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光武七年 癸卯式五月 日戶籍中草/ 大浦里
연도	서기	1898	1900	1901	1902	1903	1904
	연호	광무 2년	광무 4년	광무 5년	광무 6년	광무 7년	광무 8년
통 / 호		1통 6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1통 7호
부	직역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성명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李在傑
	연령	44	46	47	48	49	50
모	씨명	許氏	許氏	許氏	許氏	許氏	
	연령	45	47	48	49	50	
자	성명	時芳	時芳	正斌	正斌	正斌	正斌
	연령	5	7	8	9	10	11
비고	- 1918년 이승빈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28세, 제적부에 1891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27세다. - 『형사사건부』에 이승빈은 하원리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지갑생

지갑생의 집안은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부터 마지막 36권 호적중초(1908년)까지 나타난다.

<표 18> 지갑생 호적중초 기록

호적명	구분	하원 32	하원 33	하원 34	하원 35	하원 36
연도	서기	1904	1905	1906	1907	1908
	연호	광무 8년	광무 9년	광무 10년	융희 1년	융희 2년
통 / 호		4통 1호	3통 10호	3통 10호	14통 7호	5통 5호
부	직역	執事	執事	執事	執事	執事
	성명	昌念 ⁵⁾	昌念	昌日	昌一	池昌日
	연령	44	45	46	47	48
모	씨명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姜召史
	연령	34	35	36	37	38
본인	성명					
	연령					
비고	- 1918년 지갑생의 나이는 『형사사건부』(1918년)에 30세, 제적부에 1882년생으로 기재되어 이를 기준하면 36세, 호적중초에는 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제적부에 의하면 아버지는 지창념 어머니는 강옥이다. 제적부의 기록을 통해 호적중초에서 아버지 지창념을 찾아내었다.

3) 호적중초 미등재

(1) 고기동

고기동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에 의하면 고기동은 1897년생으로 하원리에서 출생하여 1959년 사망할 때까지 여기에 살았다.

(2) 김상언

김상언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에 의하면 아버지는 김용진 어머니는 한씨이다. 김상언은 1922년 3월 10일 하원리에서 외도리로 이주하였음을 제적부에 남기고 있는데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상언은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원리 사람들 중 가장 중형인 6년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3년으로 감형되었는데 1919년 2월 4일 형이 집행되었으므로 1922년 2월 3일이 형기 종료일로 계산된다. 제적부의 기록은 바로 출옥 이후 외도리로 이주하였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3) 김인송

김인송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 상 김인송은 1877년 하원리에서 출생하였고 1929년 하원리에서 사망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4) 이춘삼

이춘삼은 호적중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제적부 상 이춘삼의 아버지는 이용광 어머니는 고씨이다. 이춘삼은 1855년 하원리에서 태어났으나 1929년 제주면 오등리로 이전한다. 이춘삼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 이후 하원리를 떠나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확인 불가

현재 후손을 찾지 못하여 제적부도 추적이 안되므로 호적중초로의 접근 시도가 불가능한 인물은 김병일, 양봉, 지축생 3명이다.

이상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하원리 인물 20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13명은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물이고 4명은 호적중초 미등재 인물, 3명은 후손이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태여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들이다.

5) 지창념은 창일(昌日, 昌一)이라는 이명도 사용하였다.

IV. 맺음말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기록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하원리 인물은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음을 살폈다. 4명이 등재되지 않고 있고, 3명은 현재 후손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추적이 불가능 하였다. 호적중초에 기록이 있는 인물 13명은 강기추, 강순봉, 강태하, 김인호, 문남진, 원인수, 이달생, 오병윤, 오인식, 원성춘, 지갑생, 이승빈, 현재천이다. 호적중초에 미등재된 인물 4명은 고기동, 김상언, 김인송, 이춘삼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3명은 김병일, 양봉, 지축생이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인물 13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이 등재된 경우 8명, 부(父) 등재가 5명이다. 등재 횟수별로 살펴보면 본인 등재인 경우 1회 등재에서부터 12회 등재된 인물까지 있었고, 부(父) 등재인 경우 5회 등재부터 13회 등재된 경우까지 살필 수 있었다. 가계의 등재기간을 살펴보면 1810년 하원리 호적중초 1권부터 등재되는 가계가 있는가하면 중간에 나타나는 가계 혹은 1회만 등재되는 인물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하원리 인물의 호적중초 등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가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참여자 가계의 등재 여부 및 언제부터 하원리에 살고 있던 가계인지 파악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간의 가족 관계가 파악되는가 하면, 항일운동 이후의 혼인관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차후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 명단이 있는 도순리 월평리 등지의 호적중초까지 조사한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의 호적중초에 등재되는 원호 도인구 등의 호적중초 본연의 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참고자료

-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목포형무소, 1928. 12. 12, 국가기록원 소장)
-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1918, 국가기록원 소장)
- 『정구용판결문』(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1923. 6. 29, 국가기록원 소장)
-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1918, 국가기록원 소장)
- 『하원리 호적중초』(하원리 마을회관 소장 촬영본, 2007)
- 『대포리 호적중초』(대포리 마을회관 소장 촬영본, 2007)

2. 연구논문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동전,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 김동전, 「호적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 『동서사학』 제6·7합집, 2000.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부록>

<표 19> 하원리 호적증초 목록

호적명	호적 표제	연도
1권	嘉慶 十五年 正月日/ 庚午式 / 下院里/ 戶籍中草	1810년
2권	嘉慶 十八年 正月日/ 癸酉式 / 中草/ 下院	1813년
3권	嘉慶 二十一年 丙子式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16년
4권	嘉慶 二十四年 正月 己卯式 戶籍中草 / 下院里	1819년
5권	壬午式/ 道光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22년
6권	道光 五年 乙酉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5년
7권	戊子式/ 道光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8년
분실		1831년
분실		1834년
8권	丁酉式/ 道光 十七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37년
9권	庚子式/ 道光 二十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0년
10권	癸卯式/ 道光 二十三年 正月日 / 下院里 戶籍中草	1843년
11권	道光 二十六年 下院里 丙午式 / 戶籍中草	1846년
12권	己酉式/ 道光 二十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9년
13권	壬子式/ 咸豐 貳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2년
14권	乙卯式/ 咸豐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5년
15권	戊午式/ 咸豐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8년
16권	咸豐 十一年 正月日 大靜縣 辛酉式 / 戶籍中草	1861년
분실		1864년
17권	丁卯式/ 同治 六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67년
18권	庚午式/ 同治 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0년
19권	同治 十二年 正月日 / 大靜郡 河源里 癸酉式 戶口中草	1873년
20권	丙子式 / 光緒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6년
21권	己卯式/ 光緒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9년
22권	壬午式/ 光緒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2년
23권	乙酉式/ 光緒 十一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5년
24권	戊子式/ 光緒 十四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8년
25권	辛卯式/ 光緒 十七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1년
26권	甲午式/ 光緒 二十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4년
27권	戊戌式/ 光武 二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8년
28권	光武 三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9년
분실		1900년
29권	光武 五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1년
30권	光武 六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2년
31권	光武 七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3년
32권	光武 八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4년
33권	光武 九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5년
34권	丙午式/ 光武 十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戶籍中草/ 河源里	1906년
35권	丁未式/ 光武 十一年 正月日 / 大靜 左面 戶籍中草/ 河源里	1907년
36권	戊申 隆熙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908년